

9 June 2021

## **HSBC, 서울시-생명의숲과 손잡고 도시 숲 조성 추진**

###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HSBC 글로벌 프로그램의 일환 자연기반해법 개념의 도시 숲 조성**

HSBC 코리아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환경단체인 '생명의숲'과 함께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s) 개념의 도시 숲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6월 8일 서울시청 서소문 2 청사 8 층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HSBC 코리아 정은영 대표, 서울시 최윤중 푸른 도시국장, 생명의숲 허상만 이사장이 각 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했다.

HSBC 그룹은 지난 10월에 기후 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WWF, 월드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WRI)와 함께 '기후 솔루션 파트너십'이라는 글로벌 환경 활동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는 기후 변화 방지에 주력하는 기업과,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도시 숲 조성 프로젝트는 이 글로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며, 앞으로 3년간 서울의 훼손된 녹지나 나대지에 3곳에 도시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3억원이다.

이 프로젝트에 HSBC는 기획 및 사업비 지원, 서울시는 기본 방향 제시 및 행정 업무 지원, 생명의숲은 기획, 설계, 실행, 관리의 역할을 맡게 된다.

올해 첫 사업으로, 영등포 문래공원 내부의 훼손된 녹지지역을 선정했으며, 하반기에 이곳을 숲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자연기반해법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 숲의 자연 회복력을 높이고 도시의 열섬 저감과 생물 다양성 증진, 탄소 상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성과 지표와 측정 방법을 수립하여 도시 숲이 저탄소 사회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

HSBC 코리아 정은영 대표는 "HSBC는 오래전부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탄소 중립 은행 연합의 창립 멤버로 참여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환경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지속가능금융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 프로젝트가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 협력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SBC 그룹은 '기후 솔루션 파트너십'에 1 억 달러의 기부금을 투입하여 다음과 같이 3 가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환경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 **자연기반해법** –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글로벌 환경단체들과 함께 숲과 습지의 보호와 복원, 지속가능 농업등을 지원하여 자연적인 탄소포집과 기후변화로부터 사회 환경의 복원력을 높이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세계적으로 20 여개의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다.
- **에너지 전환** –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지역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비즈니스 혁신** – 스타트업 기업과 차세대 기술을 통해 탄소 저감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 WWF의 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학, 연구기관, 인큐베이터 기관과 함께, 대규모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HSBC 코리아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청소년 비전 지원사업', '청소년 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 보호 프로그램' 등 환경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후원해 오고 있다.

#### 보도자료 문의:

서채원 부분부장

2004-0882

Hyonjinsuh@kr.hsbc.com

#### HSBC

HSBC는 한국에서 은행지점과 증권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홍콩상하이은행은 HSBC 그룹의 창립 멤버이며, HSBC 그룹은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64 개 국가 및 지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3월말 기준 자산은 2 조 9 천 5 백 90 억 달러로, HSBC는 세계 최대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기관 중 하나이다.